



난방유 신규보급 필요성 및 추진방향



강 신 민

〈 통산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

1. 난방유 신설의 필요성

석유제품은 원유로부터 연산품 형태로 제조되며 그 성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행 석유제품 목 분류체계에 의하면 등유는 난방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경유는 난방용 및 수송용으로 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석유제품 현황〉

유종	'96소비비중(%)	용	도
회발유	9.4	승용차용	
등 유	10.2	보일러(난방)용	
경 유	24.0	수송(차량·선박)	
B-C유	22.6	중소형보일러(난방·산업·발전)용· 대형보일러(난방·산업·발전·선박)용	
기 타	33.8	나프타·항공유·아스팔트	

이러한 분류체계는 경유를 수송용경유와 Heating-oil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OECD회원국등 다른 주요국가들과 상이할 뿐 아니라, 석유제품 중 특히 난방유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장기능에 맞는 가격체계의 형성을 어렵게하는 등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추진에 장애요인인已经成为了一大障碍。

특히 난방부문에 있어서 등유는 생산수율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반면 경유는 상대적으로 공급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비자들이 경유보다 등유를 선호함으로써 등유에 대한 구조적인 수급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항공유와 매우 유사한 고급 유종인 등유를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난방용으로 사용하여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송부문에 있어서 경유 가격수준이 주요 외국에 비해 낮아 경유의 과도한 사용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심화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소비억제를 통한 물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송용 경유가격의 합리화가 요청되나 이 경우 경유를 열원용이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써 가격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방유의 품질규격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 현행 석유제품의 분류체계와 가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난방유의 소비행태를 합리화하여 난방유등 국내 석유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소비절약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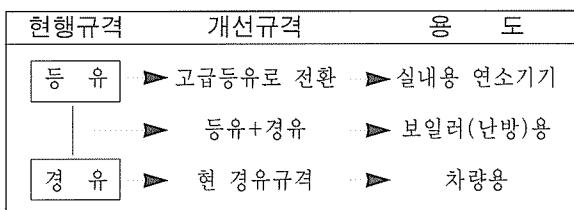
2. 기본 추진방향

석유제품 품목 분류체계 개선은 등유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난방유소비행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행 등유와 경유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형태로 난방(보일러)용 유류규격을 별도로 신설하고 현재의 경유는 수송용으로만 사용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난방용 등유수요의 90% 이상이 신규 난방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등유만 사용하는 석유난로등 실내 연소기를 위해 현재의 등유는 계속 공급도록 하되 실내환경에 적합하도록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석유제품규격 개선체계도〉



또한 난방유 신설에 따른 고급등유, 난방유, 수송용 경유간의 가격체계는 기본적으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하여 난방유의 주소비자가 중소기업, 농어민, 서민인 점을 감안하여 난방유(Heating-oil) 규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일본이나 유럽등 주요소비국의 가격체계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고급등유가격>수송용경유가격>난방유가격의 체계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송용 경유가격>고급 등유가격>난방유 가격의 구조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난방유 공급대책

신규난방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현행 생산체제에서 등·경유를 혼합하는 것은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난방유와 수송용경유의 구별을 위하여 난방유에 착색공급 및 식별제를 첨가할 예정이다.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새로운 규격신설로 주유소 저장시

설이나 수송시설등의 시설투자 소요가 발생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등유 유통시설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으며 실내 연소기기를 위한 고급등유도 기본적으로 기존 등유판매량의 22%정도를 담당하는 일반판매소를 활용하여 공급하고 저장시설에 여력이 있는 고급등유 취급을 희망하는 주유소도 있을 것 이므로 안정공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설되는 난방유규격은 등유규격을 2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현행 등유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고급등유와 난방유간에 적정한 가격차이를 유지시킴으로써 난방유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산 보일러에 대한 연소실험 등 실증시험을 거쳐 품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일러 연료소비자가 단기간에 난방유 소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4. 기대효과 및 맷는말

전술한 난방유 신규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그동안 만성적인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절기 난방용 유류 수급불안 요인이 원천적으로 해소 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가인 등유수입 감소로 연간 1억\$ 이상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서민난방비 부담의 적정화로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정착시키고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은 등유 대신 경유보급을 촉진케하여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난방유 신설을 통한 석유제품 규격 및 가격체계 개선은 석유부문의 오랫동안의 숙원사항으로 이를 시행함에 있어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공급안정 및 소비행태가 정착될 경우 국가적으로 유·무형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와 업계 및 국민들의 부단한 적응노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한다. ☺